

19. 휴거후에... 누구를 보호할 수 있고 누구를 보호할 수 없을까.

2015.03.06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만약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걸기를 원한다면 겸손, 자기통제, 정직함 그리고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야. 만약 너희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이끄는 것에 익숙하다면 리더로서 잘 해내지 못 할 거야. 만약 너희들이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고 그 어느때보다도 나를 필요로한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들은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낼 거야.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배운 세상의 방식들은 여기서 완전히 부적합해. 나는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보호해. 만약 너희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너희들은 파멸하게 될 거야.

친구와 가족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부서지게 될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희들의 자만함과 오만함에 대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용서를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지금 너희들의 육체와 영혼이 직면한 시험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어.

만약 너희들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다면, 나는 가장 확실하게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자만함과 오만함의 오래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죄를 인식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일할 거야.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의 지혜를 고집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내가 세상에 왔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어. 나는 무릎을 구부리고 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내 자신을 낮추었어. 이것이 리더가 하는 일이야. 그 혹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돌보는 것.

너희들 중 일부는 매우 겸손한 가정에서 왔으며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어. 다른 사람들은 좋은 모범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것이 너희들을 낙담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과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헌신해. 나는 너희들을 너희들의 오만함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진심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면서 나에게 올 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거야. 심지어 너희들의 생존과 너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존이 나와 나의 방식에 대한 너희들의 전적인 의존에 달려있게 될 거야. 스스로를 낮추고 나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벗어날 길을 마련해줄 거야.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란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그들의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을 알게 될 거야. 그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너희들은 누가 진실한지를 알아보게 될 거야. 화내고, 험담하고, 다투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야.

무엇보다도 나에게 너희들의 삶을 바쳐 너희들의 영혼을 보존해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겸손함의 사다리의 첫 단계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야. 너희들은 죄를 지었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어리석고 미숙한 결정을 내렸고, 존경과 지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였어. 그리고 너희들이 말을 들었어야 할 사람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였어.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엉망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너희들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줘야해. “주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또 지었어요. 저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주님의 용서를 구해요. 저는 제가 이끌어 온 오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회개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주님의 피로 저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저의 내면의 악에서 구원해주세요.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신선하고, 새롭고, 주님의 형상으로요. 저의 삶을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드려요.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인도해주시고,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와 함께 내가 가르쳐준 주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의 성격을 즉시 조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나는 너희들에게 수많은 사랑의 편지들을 남겨놓았어. 그 편지들을 읽고,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해라. 나를 알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은 없어. 너희들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나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모든 시험들을 통해 너희들을 지탱할 거야. 너희들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든 나는 너희들의 오른쪽에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아무것도 너희들을 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어. 아무것도.

지구에서 혹은 지구 위의 어떠한 것도, 외계인도, 죽음도, 너희들이 넘어질 때에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여전히 너희들의 옆에 있어. 아무것도 너희들을 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넘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도중에 실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라. 너희들이 넘어졌을 때 도망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라.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달려와라.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나의 품에 안고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심판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너희들이 실패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세울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절대로,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지식으로 알고 이해해라.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지지하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도울 준비가 되어있어. 이 지식으로 나는 너희들이 지금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며

전진하기를 원해. 오늘부터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인도하고 나와 함께 천국에 영광을 가져올 나의 것이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갔으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 거야. 너희들만의 특별한 장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곳. 나는 사람들로써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신이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의 한계를 절대로 찾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야. 나는 영원히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나의 것이야.